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가정의 달 다섯 번째 주일로 오늘은 자연예배로 야외에서 예배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 오늘 공동식사는 방별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방탁구대회 결선이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용계리 교회로 국내선교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제 43 - 22 호

2026년 5월 31일

사랑방공동체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자연예배

강단을 꽃으로 : 양기모 · 이명호 집사 가정 (결혼기념)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캄보디아 난민신청자 린 가정 자녀결합 지원활동

지난 5월 14일은 제주 사역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기쁘고 보람된 날이었습니다. 선교통신 96회에 소개했던 린의 가정은 생계와 생존을 위해 9살 큰딸을 고국에 남겨둔 채 난민신청자(G-1-5) 신분으로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난민법상 가족결합권이 인정되지 않아, 화상통화를 하며 서럽게 우는 어린 딸을 데려올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간 안타깝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5월 14일 오후, 린의 가족을 품어온 새가나안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딸이 친할아버지, 이모와 함께 관광비자로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나, 출입국청으로부터 입국불허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입국 담당 직원은 목사님이 보낸 가족 초청장을 입국자들 앞에서 보란 듯이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비인격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면 돌려보낸다는 말에,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전율처럼 강하게 스쳤습니다. 한림읍에서 공항까지 서둘러 달려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화살기도를 바쳤습니다.

공항 출입국청으로 달려가 담당 계장을 만나, 초청장을 눈앞에서 찢어버린 비인격적인 처사를 거세게 문제 삼으며 미성년 아이의 인권과 인도적 차원의 유연한 법 적용을 호소했습니다. "제주까지 날아온 이상 속이 숯덩이가 된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며 아이만이라도 입국할 때까지 공항에서 버티고 법적·언론 호소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아이 엄마까지 불러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했으나, 린 가정의 비자가 인도적 체류 자격(G-1-6)이 아닌 난민신청자 신분이라 입국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침통해하는 목사님과 굶은 눈물을 흘리는 아이 엄마를 보며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만나러 온 어린 딸을 목전에서 돌려보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고해달라"며 비장하게 맞섰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비장함이 통했는지 담당 계장은 다시 논의해보겠다며 자리를 떴고, 잠시 후 들어온 과장이 엄마와 둘째 아이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아이만 입국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이모의 입국은 끝내 거부되었지만, 출국장에서 기다린 끝에 항공사 직원과 함께 걸어 나오는 큰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상봉이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헤어져 가슴앓이 하던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그네를 주의 이름으로 환대하며 가족같이 섬겨왔던 새가나안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제주 작은이의 벗 이학산 목사

- 노회에서 지정하여 사랑방공동체에서 매달 선교 지원하는 곳입니다.
- 원고 분량이 넘쳐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한주간의 말씀

“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 시편 8편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85 359 / 370

기도 : 조민아 집사

성경 : 역대상 8장

제목 : 언약의 족보

1. 내용: 베냐민의 족보이다 (What)

<문단구분>

1~2절 베냐민의 아들들 : 벨라, 아스벨, 아하라, 노하, 라바

3~5절 벨라 계열의 주요 족장들

6~7절 에훗 계열에서 나온 족장들

8~28절 사하라임 계열에서 나온 족장들

29~40절 초대 왕 사울 계열의 계보

2. 의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계보 (Why)

1) 역대상 1~3장은 직계 중심으로 쓰여졌다.(사람 중심, 시간적 개념)

2) 4~9장은 지파 별로 계보가 쓰여졌다. (지파 중심, 공간적 개념)

3) 포로귀환 한 세대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알려주고 있다.

3. 적용: 언약을 바탕으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자. (How)

1)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자

2) 언약 안에 굳게 서서 불안해하지 말자

3) 각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사랑방교회에 온 지 얼마 안된 저에게 주보글을 쓰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무엇을 써야할 지 잘 몰라서 여러분들은 보기 힘든 멧쟁이학교 학생의 하루 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기는 눈을 뜨며 6:53분에 기상했다. 비가 오는 관계로 교육관에서 아침운동인 2000년대 초같은 새천년 건강체조와 피티체조 6번 동작을 45회 힘차게 수행했다. 오늘은 수요일 멧쟁이, 남자답게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당차게 아침식사 준비를 하러 갔다. 보통 아침당번을 하러가면 3~4명이 초점없는 눈으로 있지만, 멧쟁이날 이기에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갖춰입느라 바쁜 듯하다. 나는 평범하게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5방으로 왔다. 양치를 하고 섬김이 이기에 계단을 윤기나게 쓸었다. 그렇게 쓸다보니 어느새 예배시간이 되어 성경책을 들고 교육관 1층으로 내려갔다. 예배 시작 전 마음 차분히하고, 찬양 때 다시 흥분케 했다. 느낌 탓인지 모르겠지만 학생회가 바뀐 이후 찬양시간이 더 활기차졌다고 해야하나 하여튼 그렇다. 신명나는 찬양이 끝나고 이어진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다. 설교 제목까지 넣고 싶지만 사실 기억이 잘안난다. 하여튼 눈이 무거워졌던 설교가 끝나고 바로 수학, 국어시간. 요즘은 눈을 감았다 뜨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있다. 이상하게 점심시간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이 말뚱말뚱 떠졌다. 항상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그제저 입을 땀냄새가 조금 가미된 옷을 입고, 축구를 하러갔다. 나는 남자다운 수비수이기에 절대 뛰지 않고 패스와 드리블만 주구장창하다 축구가 끝났다. 항상 공뺏기고, 덥고, 화나지만 축구만의 매력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것 같다. 이 후 바로 노작, 작업은 고추밭 쇠파이프 박기였다. 흥인이형과 힘차고 알차게 박고 간식으로 달달한 수박을 먹었다. 이 후 바로 체육시간 전래놀이였다. 무지개다리, 사방치기, 깡통차기를 하며 다시한번 나의 운동신경을 뽐냈다. 체육이 끝나고 바고 수요일예배준비 후 숙소에서 남자학우들과 뜨겁게 맨몸운동을 했다. 요즘따라 멧쟁이학교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 운동할 맛이 난다. 운동 후 시원하게 씻고 다시 양복을 입은 후 맛난 저녁식사를 했다. 맛난 식사 후 수요일 청소로 계단을 다시한번 박박 닦았다. 그리고 수요일예배를 드렸다. 요즘 역대지상 족보를 주제로 성서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저녁 간식을 먹으러 갔다. 매일 나오는 라면이 아니기에 배터지게 먹고 섬김이기에 마무리 청소까지 하자 거의 목상시간이기에 목상을 시간을 가졌다. 목상이 후 컴퓨터를 가지고 내려와 찬양을 들으며 숙제와 공부를 하였다. 영공하다보니 벌써 12시가 되었다. 교육관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올려놓고 잡자리에 들었다. 항상 조금에 대화를 하며 자고 싶지만 너무 졸려 말도하기 전에 잠에 들어버린다. 내일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니 까 자기 싫어진다.

푸른꿈사랑방 김재준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마태복음 6:26,28-29,31-33	인도자
*예배의 찬송	43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고린도후서 5:17	인도자
*용서의 말씀		다함께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478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공동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시 편 8:1-9	설교자
성가대 찬양	588	다함께
설 교	“ 온 땅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79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288(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최창수 정혜옥 / 봉헌위원 : 최신혜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흔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몸, 맘을 주소서.<공동기도문>

공공기도문
 물, 불, 흙, 공기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체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날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의 꽃인 불을 통해
 우리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삶에
 따뜻하고 시원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흙을 통해
 미생물로 이뤄진 우리가 날마다
 채움을 얻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살이를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는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물, 불, 흙,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생활하는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삼위 하나님

가장 흔한 물, 불, 흙, 공기를 잘 아끼지 않고
 욕심대로 사용한 결과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다시 가장 흔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맘, 몸을 주소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태와 경제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며
 구원의 회복이 나로 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륜의 생명 살림을 이루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일상생활사역연구소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채영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매일 아침 공동체 마당과 텃밭 주변을 한 바퀴 빙 둘러보는 산책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갭게 익은 뽕딸기도 한 알 먹어보고, 까맣게 익은 버찌도 한 개 씹 먹습니다. 쭈욱 키가 자란 개망초 앞에 서서 “내가 더 크네! 나보다 더 크네!” 키 재기를 합니다.

이용신 장로님과 전경희 집사님, 나송주 집사님은 산책길에 만나는 단골손님입니다. 밝고 높은 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립니다. 주로 가만히 앉아있는 제로에게도 “제로 안녕! 좋은 하루 보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가운데 길 넝쿨에는 우아한 장미가 곱게 피었습니다. 조심스레 향기를 맡아보고 “와 냄새 좋다!” 감탄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부추와 감자, 상추 옆을 지나 우리 꾸러기 밭에 도착합니다. 빨갭게 익은 딸기가 있는지, 방울토마토 꽃이 피었는지, 쌈채소는 더 자랐는지 열심히 살핍니다. 딸기 옆에 자라난 꿩이밥도 한 두 잎 꼭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이지만 야무지게 쌈채소 잎을 따서 모으고 물뿌리개에 물을 받아와서 쪼르르 물을 줍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꼭 두 번씩 물을 받아와서 줍니다.

이제 산책시간이 끝나갑니다. 꾸러기학교로 들어가 체조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행사나 휴일이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꼭 있었던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멋 부리는 날, 체육대회, 캠프, 바자회가 있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도 있었던 5월. 그래서 행사가 없는 날에는 더 시간을 아껴서 휴일이나 행사 때문에 미비해지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쓰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5월의 사랑방은 참 예쁩니다. 연두에 초록을 더하고, 보라색 붓꽃도 여기저기 피어나고요. 뒤 운동장으로 가는 발 가운데 길의 장미덩굴에서는 새빨간 장미가 여러 송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막 익어가기 시작한 버찌는 ‘이 날(공동체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어린이 친구들에게 발견되어서 금요일부터 몇몇 어린이들의 입술을 보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나간 5월의 LTSS 시간에는 하경임 선생님께서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해주셨습니다. 먼저 캠프를 앞두고 버너에 불을 붙이고 채소를 손질하고 썰어보는 연습을 했고, 2주차에는 옷 정리 방법을, 3주차에는 기본 바느질법을 배웠습니다. 모두 살아가면서 꼭 배워둬야 하는 참 요긴한 기술들이지요.

내일부터 6월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린이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하면서 저마다의 열매들을 잘 키워보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교육관 증축공사를 위한 사랑방공동체학교 바자회를 준비하는 분주한 한주를 보냈습니다. 바자회에서 선보일 워십댄스 ‘달리기’ 공연을 위해 멋쟁이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틈틈이 가졌습니다. 여러 동작에 합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까지 맞춰가는 더디지만 하나 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 이외에도 바자회를 위한 물품 분류, 테이블 배치, 놀이 진행 등 멋쟁이들의 손길이 곳곳에 닿았습니다. 이렇게나 성실히 맡은 일에 임하는 멋쟁이들을 위해서 금요일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사랑의 저녁식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정성껏 준비한 바자회 날,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교육선교를 위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조민아 >

“종신서원을 하면서”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날, 목사님과의 면담이 있었다.
그때 서원서를 받아들고 읽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가슴이 떨렸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덕을 위해 절제하는 삶,
땀가없이 섬기는 삶,
평생 노력하며 헌신하며 살기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서원합니다.
라는 그 문장들이 내 마음을 전율케 한다.

평소에 공동체와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냥 살아왔는데 막상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과 책임감이
나의 마음을 더욱 떨리게 한다.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 힘들고 지쳐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주님 저 힘들어
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하면서 속상해 하면, 가만히 위로
해 주시던 주님, 정말 앞에 꼭 막혀 해결할 수 없을 때에도, 생각지
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셨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표현력이 없어,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저 커다란 섬김도 없
이, 그저 조용한 작은 몸짓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련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고,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하실 때, 두려움 없
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미숙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292장

성 경 : 히브리서 11장 1절~6절

말 씀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해>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
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의탄교회, 용계리교회>

의탄교회의 최경희목사님과 용계리교회의 박인옥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5월의 남은 일정들, 선교위원회의 선교지 방문과 자연예배, 탁구
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공동체학교 바자회 뒷마무리를 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여러
물건들을 분리수거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멧쟁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큰 비소식에 배수로 정리도 하고 매일 매일 쑥쑥 자라는 잡초제거에
힘을 썼습니다. 잡초와의 싸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 해 처음 심
은 장미가 활짝피어 고단한 작업 중에도 잠시 위로가 되어주었습니
다. 뿌려 놓은 상추가 풍성하게 자라서 공동체식구들과 나눔을 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